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2 09 제164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천주교마산교구사목국



소공동체 모임 순서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소공동체 모임 시작 전에 매월 2째주 혹은 3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이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 진행 |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 인사 나누기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 진행 |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 진행 |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 진행 | ✧ 길잡이에서()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 1) 복음말씀을 읽는다.
-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5] 말씀 살기

-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6] 마침기도

5. 궁금했어요

| 진행 |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진행 |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 진행 |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 진행 |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진행 |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 진행 |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연중 제24주일 (9월 11일)

되찾은 양과 은전과 아들의 비유 (루카 15,1-32)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6번 “사랑의 송가”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살려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루카복음 15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1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2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4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5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6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7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8 또 어떤 부인이 은전 열 닢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닢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 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살살이 뒤지지 않느냐? 9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10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11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12 그런데 작은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13 며칠 뒤에 작은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14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곤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15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16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17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18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19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20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21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22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



저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24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25 그때에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26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27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히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28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29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30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저 아들이 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주시는군요.’ 31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32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 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루카 15,7)

하느님께서서는 잃은 것을 되찾고 기뻐하는 이들처럼 회개하는 죄인을 반기시며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십니다. 회개로 인해 기쁨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루카 15,10)

루카는 15장에 나오는 세 비유를 통해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어떤 모습을 알려 주고 계신지 나누어 봅시다.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건없는 사랑

사랑법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만약에’식 사랑(Love of If)입니다. 그건 “내 말을 잘 들으면...” 이런 식의 조건을 앞세우는 사랑입니다. 둘째는 ‘때문에’식 사랑(Love of Because)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외모가 아름다워서” “아는 게 많아서” 등등 상대방의 가치에 따라 바뀌는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식 사랑(Love of Nevertheless)입니다. 상대방의 조건과 가치가 자신의 기대와 기준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건없이 베풀고 싶은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앞의 두 가지 사랑을 즐겨합니다. 그래서 사랑앞에 무수한 조건들을 달아 놓습니다. 하지만 이들 조건을 만족시키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결국 이들 조건에 목을 맨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지금 그대로



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이 있는 곳은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고 포근히 안아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46번 "사랑의 송가"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경축이동 (9월 18일)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한 것이다.(루카 9,23-26)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87번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노래"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저희를 이끌어주소서.

- 주님, 많은 유혹과 시련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루카복음 9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23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24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25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26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싸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들읍시다.

✝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루카 9,23)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 나누어봅시다.

✝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루카 9,24)

한국 천주교회가 그토록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끊임없이 신자 수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죽음을 넘어선 신앙을 선택하게 했을까요?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순교자의 고통

1. 멸문지화의 걱정 : 가족, 친척들이 극심하게 말리는데 느끼는 고통
2. 언제 잡힐지 모르는 불안과 초조감에 사로잡혀 살아야하는 고통
3. 피난생활의 고통 : 모든 것을 버리고 피신, 산 속에서 혹한, 아사의 고통
4. 고문을 통한 고통 : 잡히면 모진 고문이 따른다.
5. 감옥의 고통 : 갈증, 배고픔, 멍석자락을 뜯어 먹는다.
6. 순교의 고통 : 순교당할 때 단칼에 베지 않고 여러 차례 고통을 준다.
7. 순교 후 시신이 당할 오욕 : 수장, 서소문 하수구, 모래사장에 방치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86번 “순교자의 믿음”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빵’을 나누는 공동체

신안본당 4구역 5반, 6반 소공동체장 오석자 헬레나

1998년 논과 밭이던 신안 들판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저희 동네가 탄생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를 온 사람들은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우리집 거실에는 꼭 예수님을 모셔야지.’ 하며 하나 같이 더 잘 살아보고자 하는 꿈을 안고 왔습니다. 저 역시 새 집으로 입주하면서 새로 형성된 소공동체의 씨 뿌리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를 정이 넘치는 곳으로 가꿀 수 있을까 궁리하며 매일 밤 기와집을 짓고 허물고 하였습니다.

반적부를 들고 이사 온 교우들을 가가호호 방문하며 사람을 모으기 시작했고, 신앙생활을 잘 해보리라 마음 먹은 교우들이 모여 복음나누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의 첫 목표는 ‘가족 같은 공동체’와 ‘열매 맺는 복음나누기’였습니다. 저희는 말씀나누기와 함께 삶으로 하는 복음나누기를 함께하며 말씀의 씨를 동네 구석구석 뿌렸습니다. 전입교우 환영하기, 주일학교 안내하기, 병자돌보기, 예비신자 돌보기, 어려운 이웃돌보기, 아기돌보기, 음식나누기, 일손 돕기, 자녀들이 사용한 참고서, 장난감, 옷 나누기 등 저희들이 나누는 주님의 빵은 신자와 비신자를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돌아가게 하면서 선교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냉담자들이 마음을 열고 동네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문을 닫고 있던 병자세대에서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신자들의 호감과 친교로 예비신자는 날로 늘어났습니다. 저희는 신친관계를 소공동체 안에서 맺어 가족관계를 돈독히 하여 냉담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열매는 또 씨를 뿌리며 저희 동네에는 점점 할 일이 많아졌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궁리하다가 소공동체 활동과 레지오 활동을 접목시켰습니다. 즉 레지오 활동의 주력무대를 우리 동네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매 주 월요일 오전 놀이터에 모여 조를 짜 동네 곳곳으로 가 주님의 빵을 나누었고, 활동 후에 다시 모여 나눔을 했습니다. 복음이 주는 힘과 기쁨은 나와 너의 삶을 행복하게 하였고, 성경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게 해 주었습니다.

강산이 두 번 변하는 세월 동안 저희 신안동 본당소공동체는 많은 열매를 맺어 교구에서 주는 선교 대상과 본당 선교 대상을 여러 번 받았습다. 선교 대상 상금으로 본당에 커피자판기를 들여 놓았고, 상금은 모두 선교활동비로 활용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세상의 변화도 안아야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공동체장을 장기집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세대와 병자세대가 늘어나고, 맞벌이 세대가 늘어나면서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세대는 줄었습니다. 하지만 20명이 모임 때나 10명이 모임 때나 저희는 복음나누기를 왜, 어떻게 하는지를 깨달았으므로 변함없이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소공동체 봉사를 하며 겨자씨의 비유를 늘 묵상합니다. 겨자나무는 그리 큰 나무는 아니지만, 그 그늘에 하늘의 새들이 깃들여 쉽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겨자나무만한 그들은 드리울 수 있지 않느냐고, 그 그늘에 작은이들이 잠시 쉬어가게 하라고, 저를 부르셨나 봅니다.



전례는 무엇인가?

전례는 그리스도의 신비, 특히 그리스도 파스카 신비의 거행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전례 안에서 인간들의 성화가 실현되며 표징으로 드러난다. 그리스도 신비체, 곧 머리와 그 지체들은 하느님께 공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 해설

전례典禮라는 우리말은 국가나 사회의 공적인 의식儀式 또는 예식禮式을 가르키는 말이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전례는 하느님 백성의 공적인 예배를 가르킨다. 이 전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히 당신 파스카를 통해 완벽하게 수행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전례의 거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전례를 거행하며, 이로써 우리의 성화와 구원이 이루어진다.

† 용어

그리스도의 신비

교리서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강생의 신비, 구속의 신비, 파스카 신비, 십자가의 신비 등 여러 가지로 세분한다. 하느님의 아들이 사랑이 되시어 죽음과 부활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은 참으로 큰 신비이다.

교회에서 전례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탁월하고 거룩한 행위인 전례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교회의 생명력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전례를 통하여, 당신 교회 안에서, 교회와 더불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속량을 위한 일을 계속하신다.

† 해설

“전례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는 것이다. 전례 안에서 인간의 성화가…실현되며, 그리스도의 신비체, 곧 머리와 그 지체들이 완전한 공적 예배를 드린다. 따라서 모든 전례 거행은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그 몸인 교회의 활동이므로 탁월하게 거룩한 행위이다. 그 효과는 교회의 다른 어떠한 행위와 같은 정도로 비교될 수 없다.”(전례 헌장 7장).

† 용어

속량 贖良

우리말 속량은 몸값을 받고 노비의 신분을 풀어 주어 양민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몸값으로 치르고 우리의 죄와 죽음에서 구해 내신 것을 말한다. = 구속救贖

*한남성서연구소에서 출판한 「말씀으로 익히는 가톨릭 교회 교리 문답」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임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아멘.

